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연회 말씀자료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

계좌이동서비스 시행 약 4개월('15.10.30.~'16.2.24.)만에
Payinfo 접속자가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높고 이용도 꾸준합니다.

내일부터는 전국 은행 창구와 온라인뱅킹을 통해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개혁이 국민 일상생활에

한걸음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약 5만개 요금청구기관에 대해

약 6억건의 자동이체가 은행계좌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
내일 3단계를 시행하기까지

1년 이상의 방대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좌이동서비스 각 단계가 개시될 때마다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갖추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금융결제원과 은행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가 내일부터 시행되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자동납부는 물론 자동송금까지

원스톱으로 자동이체계좌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즉, Payinfo 홈페이지 외에도

각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을 활용하셔도 되고,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국 은행창구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이용대금 자동납부 외에
적금, 회비, 월세와 같이 고객이 직접 설정한
'자동송금'도 조회·변경·해지가 가능합니다.

금융결제원과 은행이 공동 개발한 Payinfo 시스템은
계좌이동서비스가 가장 발달하였다고 알려진

영국과 비교해 보아도,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세계 최초의 금융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①온라인 서비스 가능(英 창구방문 필요), ②처리기간 5영업일(英 7영업일),
③자동이체 변경신청시 은행간 수락률(Acceptance rate) 98%(英 95%)

실제로 영국의 관련 기관들이

Payinfo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니,

우리나라 인프라를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날도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은행·증권·보험 각 금융업권간, 그리고 IT와 금융 등 이중업종간에도 융합현상이 활발해지면서 ‘핀테크(Fintech) 혁명’, ‘디지털 파괴(Digital disruption)’, ‘우버 모멘트(Uber Moment)’와 같은 신조어가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이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을지가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이는 금융시장에 ‘경쟁과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 금융산업에 고착화되어 있었던 「판」을 흔들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드리려는 “금융개혁”의 기본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금융개혁이 작년에 계획을 세우고 씨를 뿌렸다면, 올해는 실행에 옮기고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로 “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에 투자일임업이 조만간 허용되며 인터넷전문은행 영업개시 준비도 한창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모아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국민 일상의 금융거래는 훨씬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2단계 금융개혁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올 하반기에는 「Account info」 기능을 추가하여 본인명의로 모든 은행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더 이상 쓰지 않을 계좌는 클릭 한 번으로 ‘해지’하는 한편, 잔고는 주거래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2단계 금융개혁이 실천된다는 것은 고객, 즉 국민 입장에서는 더 편리해지고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그만큼 고객확보와 유지를 위해 더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비자 맘에 드는 은행계좌로 이사가 쉬워지는 계좌이동서비스를 계기로 은행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좌이동서비스를 비롯한 일련의 “금융개혁” 과제들은 우리 은행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의미있는 전환점(turning point)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금융결제원과 은행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